

열린 한국, 대몽골리안 네트워크

한국 경제, 그동안 비약적 성장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 H. 카는 “역사란 사관과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국가 미래전략은 역사적 사실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즉,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바로 한민족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역사적 반추도 마찬가지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경제 그 자체가 국가전략의 핵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 한국경제는 그리 부각되지 못했다. 특히 닫힌 사회였던 조선시대 경제상황은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급속히 팽창했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30여 년 동안 GDP는 160배, 수출은 300배 성장했다. 세계사적으로 전무한 이 기록은 최단기간 OECD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0년대 여공과 기능공, 80년대 상사세일즈맨, 90년대 엔지니어가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면, 90년대 후반부터는 벤처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세기의 막바지에 등장한 벤처기업 수는 고작 2만여 개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25%씩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기록하며 한국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총매출 140조원, 부가가치 약 50조원에 이르는 벤처기업이 바야흐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미래 위해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노력 절실
현재 우리는 내적으로 저성장 탈피, 계층갈등, GDP 3만불 달성, 외적으로 북핵과 남북통일, 동북공정과 독도영유권 분쟁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신 인프라 2위, 브로드밴드 가입자 1위, 통신비 지출 2위, 특허생산성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 반도체, 인터넷 등 완전경쟁을 통한 세계최고 수준의 전략분야를 갖고 있는 반면 의료, 법률, 노동, 교육, 행정 등 진입 장벽 속에 보호를 받고 있는 OECD 최하위권의 문제분야를 동시에 갖고 있다. 국가전략은 이러한 폐쇄적 문제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이다. 그 전략은 바로 열린 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70%가 대외무역에 의존해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외부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외적 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열린 한국’을 지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열린 한국에 이르기 위한 전략으로 대몽골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한다. 지역과 계층, 남북한, 글로벌 한민족 그리고 대몽골리안 네트워크에 이르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승화를 통해 열린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역사적으로 ‘닫힌 것’은 죽고, ‘열린 것’은 산다
세계 4대문명은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의 접점에서 발생했다. 농경국가의 역할이 산업과 소비라면, 유목국가의 역할은 무역과 상업이다. 전 세계 도시 이름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한국의 미래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그 어떠한 과제보다 중요하다. 바로 그 해답 속
 에 한국 경제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령 독일에서는 함부르크처럼 뒤에 '부르크'가 붙는 이름이 많다. 프랑스에서는 스트라스버그처럼 '버그'가 붙고, 영국에서는 리버풀, 이것이 중동에서는 이스탄불, 인도에서는 이슬라마바드, '자이 나 푸르'가 붙는다. 동남아에 가면 촌 '부리'가 붙는다. 제주도에서도 산굼부리처럼 '부리'가 붙는데 이것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서라벌의 '벌'이 된다.

전 세계에 걸쳐 이렇게 동일한 어원을 갖는 지명이 분포하는 것은 지구의 문명이 각기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류를 지속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교류에 앞장 선 열린 국가는 살아남고 닫힌 국가는 죽어 왔다. 열린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교역과 상업이다. 또 그것을 담당했던 것이 유목민족이다. 결과적으로 농경 국가와 유목 민족이 서로 협조와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세계 문명인 것이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히타이트가 중동의 패자가 되고, 장안 이 어떻게 중국의 수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대제는 왜 로마를 버리고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는가 등에 대한 키워드는 모두 실크로드에 있다. 진시황제는 실크로드의 접점을 장악했는데, 이는 세계의 창구를 장악한 것과 같다. 세계 최고의 문명과 교류하면서 그는 강대국을 건설한 것이다. 히타이트나 콘스탄티누스대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장악한 민족이 전성시대 일귀
 이제부터라도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보는 사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관이 주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서유럽 국가와 중국인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역사는 독자적인 것이 아닌 점과 선의 연결로 보아야 한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네트워크가 바로 실크로드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관할한 민족이 바로 몽골리아 민족이다.

몽골리아의 전성시대였던 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세계에는 두 번의 기상이변이 있었다. 이는 게르만 민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대이동을 추동하는데, 결과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고 말았다.

몽골제국의 역사를 봤을 때 몽골제국이 세계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이 당시 세계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교역량이 몽골제국이 성립하면서 열 배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몽골제국의 세제시스템이 최종부가가치세였다는 점이다.

몽골제국은 통행세를 폐지한 대신 최종 소비지에서 10%의 세금을 내게 해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켰다. 그리고 그 교역 확대를 위해 몽골제국은 하루에 450km를 달리는 역참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시리아에서 고려까지 통용되는 화폐제도를 구축했다.

칭기즈칸은 실크로드를 장악함으로써 Pax-Mongolia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몽골리아의 전성시대는 17세기까지 이어졌다. 17세기 세계 4대제국을 보면 유럽의 신성로마제국, 중동 오스만터키제국, 인도 무갈제국, 그리고 중국 청제국인데, 이 가운데 신성로마제국을 빼고는 모두 몽골리아 국가들이다.

이는 17세기까지는 실크로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이었고, 그 네트워크를 장악한 몽골리아가 세계 정치도 주도한 사실을 보여준다. 육로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 이 주요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장악한 것이 유목민(Nomad)이었다.



여전히 유효한 몽골리안 네트워크

14세기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Pax-Mongolia는 붕괴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세계 무역도 함께 붕괴했다. 명나라로 인해 육로가 막히면서 유럽의 동방상품 가격이 폭등해버린 것이다.

바로 이 시기인 15세기 말부터 유럽은 직접 동방상품을 가져와 돈을 벌기 위해 대양항로를 개척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계의 교역이 실크로드에서 대양항로로 이동하게 된다. 해양을 장악하는 것이 곧 세계를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결국 해양을 장악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교역의 전성시대를 누린다. 이 주도권은 후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이동했으며 이때부터 앵글로색슨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초기에 인도 무역에서 영국이 주로 수입했던 것이 면직물이다. 그런데 이를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하자 이때부터 내부에서 직접 만들어보자 한 것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점차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한 몽골리안을 잊게 되었고 실크로드의 루트에서 번성했던 국가들 역시 17세기 이후 역사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의 역사는 곧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협조와 투쟁의 역사이며 이 역사는 몽골리안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10세기 이후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송나라는 60년 만에 남쪽으로 쫓겨 내려갔고 명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몽골리안 국가였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전체의 70%는 몽골리안이 중국을 지배했고 불과 30%만이 한족으로 독립되어 있던 시대인 것이다.

대몽골리안 중심에 ‘한국’ 주도국 나설 때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고구려 지역에 살던 말갈족, 여진족 등이 우리와 피를 나누었던 민족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민족이라는 것은 크게 신화와 설화를 공유하는데 700년간 고구려 지역에서 하층을 이루었던 말갈족, 여진족을 오랑캐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내용적 접근에서는 이들과 한 민족의 동질성 확보가 필요하다. 명분적 접근으로 살펴보면 동아시아 몽골리안의 대표적인 국가가 고리(고려), 주신(조선), 불여(부여) 등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국가들은 계속 그 이름을 따라간다. 가령 주몽이 세운 고려(高麗)에서 한자 ‘麗’ 자는 나라 이름을 읽을 때는 나라 ‘리’로 읽는다. 즉, 똑같은 고려국들이란 말이다.

이러한 몽골리안 국가들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바뀌면서 주도권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이끌고 갈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중 대륙에 있는 한국이 네트워크의 중심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몽골리안의 입장에서 역사는 다시 기술되어야 하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문명사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뒷받침에 문화적 접근, 즉 설화, 언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정리되어야 한다. 과거 몽골이 세계 제국을 이룩할 때나 여진족이 청나라를 만들 때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저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재정립, 한글의 보급 확대, 문화적 동질성 등을 통해 한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내부 활동을 외부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파괴력 막강한 모바일네트워크가 시대주역 양산
네트워크의 중심이 실크로드에서 대양으로 바뀌면서 그 주역 또한 몽골리안에서 앵글로색슨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급부상한 네트워크의 중심이 있다. 바로 모바일이다. 네트워크 중에서 모바일의 파괴력은 실크로드, 대양, 자동차, 인터넷을 합한 것보다 크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모바일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모바일의 강국은 한국과 일본, 핀란드로 모두 몽골리안 국가들이다. 모바일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꾸는가?

먼저 모바일은 인간을 바꾼다. 모바일은 인간을 DNA 변화에 의한 진화가 아닌 휴대폰이 인간의 일부가 되면서 사이보그로 진화시킨다. 그래서 모바일은 지금까지의 기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콘셉트를 가진다. 또 하나는 이런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하에 모인 단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개미집단과 같은 집단 생명체가 된다.

붉은 악마, 싸이질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 예다. 이 두 변화의 주요 코드가 유비쿼터스로 가는 모바일 기술에 있다. 모바일 기술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로써 커뮤니티 cell 역할을 하고, 또 개체가 사이보그로 진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시대는 새로운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으로 다시 나타난다. 몽골리안 민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한국, 모바일대국 장점 살려 무역대국 성취
한국의 GDP의 70%가 무역에서 비롯되는 것에서 파악되듯 무역은 우리의 성장 동력이다. 한국은 조선시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열린 국가였다. 한국의 조선(造船)산업이 세계 1위인 이유도,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원래 한국이 백제 이래 무역대국이었던 때문이다.

무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앞설 수 있는 FTA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산업 네트워크와 경제 네트워크가 합쳐졌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무역 경쟁력이고, 여기에 몽골리안 네트워크가 추가되면 강력한 차별화 전략이 되는 것이다.

현재 EU가맹국 중에서 한국과 친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일국 터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슬람국가의 윈도우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ASEAN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 베트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페루는 남미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미국, 일본과 교역을 해왔지만 이제 다른 나라로의 이동이 필요한데 여기에 통신시스템부터 가지고 가야 한다. 남미, 인도, 동유럽 등의 교두보인 페루, 네팔, 헝가리, 핀란드는 주요 모바일 협력국으로서, 놀라운 것은 이 국가들이 세계 모바일 기술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모바일 보급률이 다른 민족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는 역사, 문화, 언어처럼 몽골리안이 공유하고 있는 자산을 산업화에 연결해 현재 20세기 반도체 대국에서 미래 모바일 대국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국가번영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